

보도시점 : 2024. 6. 30.(일) 11:00 이후(7. 1.(월) 조간) / 배포 : 2024. 6. 30.(일)

한-조지아, 하늘길 열렸다

- 양국 간 항공회담 통해 여객·화물 공용 운수권 신설(주7회) 등 합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.26(수)~27(목),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-조지아 항공회담*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하였다.

* (수석대표)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김영국
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교통 및 물류정책국장 Ketevan Salukvadze

-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*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,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양국 간 교역액**도 지속 증가되고 있다.

* (양국 간 여객 수요, 명) '17년 4,877 → '19년 9,113 → '23년 9,835

** (교역액, 백만불) '17년 94 → '19년 105 → '21년 114 → '22년 130 → '23년 207

- 또한,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(EPA) 체결을 위한 협상이 '24.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이다.

*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: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,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·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하였다.

- 이에 따라,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- 아울러,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·양국 항공사뿐 아니라, 제3국 항공사*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(Codesharing)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.

* (예시) 우리 국적사가 인천→중앙아시아(예. 카자흐 또는 우즈베크)까지 운항하고, 제3국 항공사가 중앙아시아→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,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, 양 구간 마일리지 적립, 수하물 연계 운송 등 소비자 편의 제고 가능
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한-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'21년 발효되었으나,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되었다”면서,
- “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, 양국 간 인적·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,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4207)
		담당자	서기관	김태웅 (044-201-4211)
			주무관	조지예 (044-201-421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1. 협정개요

- 1) 협정체결 : '19.7.10, 가서명(트빌리시), 발효 '21.5.16
- 2) 지정항공사 : 다수제(미지정)
- 3) 노선구조

구 분	출발지점	중간지점	목적지점	이원지점
한국측	제지점	제지점	제지점	제지점
조지아측	제지점	제지점	제지점	제지점

- 4) 운임 : 신고제
- 5) 공급력 : 미 설정(추후 항공당국 간 협의)
- 6) 편명공유 : 미 설정(추후 항공당국 간 협의)
- 7) 안전 및 보안조항 : 설정

2. 협상연혁 : (1차회담) '19.7.9, 트빌리시